

강이야기

1

River & Culture



이 학 영 | 이학박사/ 고려대 수생태해설사 교수
우리협회 건설본부부위원장
(koreafish@hotmail.com)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봄의 전령사 - 누치

학 명 : *Hemibarbus labeo*

지역 방언 : 누치, 눈대가리, 놀어, 운치 등

분 류 : 잉어목 모래무지아과

자생 수역 : 서·남해 쪽으로 흐르는 하천

주식장소 : 수심이 깊고 하상에 모래와 자갈이 깔린 곳

번 식 기 : 4-5월 곡우전후

크 기 : 40-50 센티

강태공들 사이에 흔히 <누치>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물고기인 누치는 민물 수계에서는 대형종에 속한다. 누치가 뺨라 사람이 접근하면 재빨리 숨어버려 반두(죽대)로는 쉬 잡히지 않지만 유독 낚시의 유혹에는 잘 넘어가 코가 꺾이기 일쑤이다. 필자와 연구원들이 하천 생태조사를 나가면 강변에 즐비하게 늘어진 누치의 마른 몸뚱이를 자주 보게 된다. 집단으로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메마른 일부사 이비 강태공들에 의한 킬링필드 현장이다. 전업낚시꾼이 원하는 붕어나 돈이 되는 뱀장어, 잉어가 잡히지 않고 잘 팔리지 않고 인기도 없는 누치란 놈이 눈치도 없이 걸려들어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게 한다고 미운 털이 박혀 걸려나오자마자 강 쪽이 아닌 강변으로 휙 던져버리기 때문이다.

잔뼈가 많고 살이 물러 식용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선입감

으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요리재료로도 인기가 없지만 경기 북부나 강원도의 청정 수역에서는 누치를 매우 맛있는 민물생선으로 대접해 주고 있다. 본시 누치는 2급수 이상 맑은 물을 선호하는 물고기였으나 3급수에도 적응을 매우 잘 해 지금은 한강, 낙동강 하류 수역에도 서식하고 있다. 고양시 한강하류나 서울 방화대교 일대와 같은 하류 수역에는 이미 누치가 우점종이 되어 있을 정도이다.

알을 낳는 시기는 주로 곡우를 전후한 4월 말에서 5월 사이이다. 복사꽃이 아름답게 필 무렵 암수 누치 떼들이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와 수심이 얇은 강변이나 계류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운다. 몸과 지느러미를 세차게 흔들어 모래와 자갈을 들쑤시면서 물장구를 치고 물보라를 일으키는 장관을 연출한다. 이때 통상 암컷 하나에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방정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붙으며 오뚜방정 요란한 몸싸움을 하게 된다. 이를 보고 강가의 주민들은 곡우 때 누치가 알을 낳기 위해 몰려온 것을 알고 <곡우철 누치가리>라 한다. 가리라는 말은 물고기의 산란 행동을 나타내는 말로 여러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또 가리는 대나무로 만든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스톱 판의 굴욕적이고 눈치 보이는 용어와는 연관 짓지 말아 달라는 누치의 부탁).

미물인 누치가 어찌 곡우 시기를 아는자……. 곡우 때는 글자 그대로 거의 해마다 봄비가 내린다. 불어난 물줄기를 따라 상류로 치솟아 올라와 때를 놓치지 않고 짹짹의 대업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누치를 아는 예전 조상 시인 묵객들을 이 친구를 봄의 전령사로 치켜세워 주었다.

몸은 옆으로 원통형이면서 납작하나 붕어나 잉어보다 흘

쭉하다. 몸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좁아지면서 날씬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입은 뾰족하게 돌출되었으며 눈의 직경보다 짧은 한 쌍의 입수염이 달려 있다.

생태하천복원시 누치의 서식처는 수심이 1미터 이상 되고 하상에 풍부한 자갈과 모래톱 조성을 고려해주어야 한다. 🌊

누치가리

상감 이학영 / 시인

봄이 조용히 온다고
얼음장 슬며시 녹이고
부끄러이 발을 눈치껏 디민다고

그리운 이들이 새 싹으로
꽃 몽우리로 달렸다고

고향동네 큰 개울
들뜨는 듯 봄비내리는 곡우

저 먼 강바람 몰고 와
마침내 어김없어라
누치들 가리소리
첨벙 울릴 제

휘영청 비안개에 해가 가리다.



〈그림 1〉 누치는 큰 강에서는 낚시꾼들에게 흔히 잡히는 물고기다. 근래 민물고기 사육 붐으로 관상어로도 많이 기르고 있다.



〈그림 2〉 곡우 때가 되면 누치는 본능적으로 수심이 깊은 강의 중류 수역에서 얕은 개울로 올라와 짹짹기를 한다.



〈그림 3〉 누치 없이 낚싯밥을 잘못 물었다가 미라가 되어 강변에서 말라가는 누치. 살아남은 누치 무리를 위해서 불량 낚시꾼을 구분하는 눈치코치라도 해주어야 할 듯.



〈그림 4〉 남한강 생태조사에서 채집한 누치를 들고 기념 촬영한 필자와 연구원 일동. 한 연구원이 누치의 인상을 재연하려고 오만상을 구기며 쪽부림을 하고 있다.